청사초롱 불 밝힌 남원의 가을밤

남원시는 다음 달 열리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과 '31회 흥부제'를 앞두고 광한루원 담장 등 도심에 6000여 개의 청사초롱을 설치했다. 〈남원시 제공〉

시 '세계드론제전'·'흥부제' 등 행사 앞두고 야간관광 환경조성
요천변·구도심 일대 6000개 설치…'문화재 야행'·'K명승' 추진도

남원의 가을밤, 청사초롱으로 물들다.

남원시는 오는 10월 초 열리는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요천변과 구도심 일원에 대규모 청사초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6000여 개의 '청사초롱'이 화려한 모습으로 가을밤을 밝히고 있다.

'야간관광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청사초롱을 설치한 시는 가을을 맞아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은 물론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단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야간관광 환경조성을 기점으로 향후 '밤이 아름다운 남원'을 전국 그리고 세계에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에서는 오는 10월6일부터 9일까지 전 세계 35개국에서 참가하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필두로 지역 행사인 '제31회 흥부제'가 열린다.

이 기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가득한 '남원문화재 야행'과 미디어로 광한루를 새롭게 조명하는 'K명승' 사업 등도 함께 추진되며 남원의 가을밤은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예부터 청사초롱은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의미로 혼례식에 많이 쓰였다"며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청사초롱의 의미처럼 10월 행사를 통해 남원이 전 세계에 새롭게 알려지는 계기가 돼 체류형 거점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심풍택 씨 유족에 '제1호 동학혁명 유공자 명패'

전국 첫 시행…76명 유족 대상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민적 예우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명패달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유공자 명패달기 사업은 정읍시가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76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3일 첫 주자로 선정된 고 심풍택 유공자의 증손자 심재식(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읍 유족회장)씨의 집을 찾아 유공자 명패를 부착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심풍택 유공자는 1894년 3월 백산봉기에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해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후 피신했다가 1895년 3월 체포돼 처형당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위해 애쓰셨던 유공자 가족 자택에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본인에게는 자긍심을, 유족 댁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은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이학수(왼쪽 여섯번째)시장이 유족 심재식(다섯번째)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정읍유족회장의 집을 찾아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고창마켓, 지역 농수축산물 판촉 나섰다

13개 사회단체와 상생협약

고창군 직영 온라인통합쇼핑몰 '고창마켓'이 지역 13개 사회단체와 손잡고 지역 농수축산물 홍보 판촉에 나선다.

고창군은 고창마켓이 방문교류, 고창상품 홍보·판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사회단체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고창군체육회 ▲고창군여성체육회 ▲새고창로타리클럽 ▲고창로타리클럽 ▲고창라이온스클럽 ▲고창매화라이온스클럽 ▲고창군새마을금고 ▲일일선운동본부고창지회 ▲고창군애향정년회 ▲3098부대2대대 ▲고창청년회의소JC ▲고창마켓입점자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은 지역경제와 상생교류 등을 활성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마켓은 고창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4월 첫 운영을 시작했다.

오픈 2년반 만에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8만명의 회원 수를 확보했다.

고창마켓 입점자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군청광장에서 추석선물 플리마켓을 진행 중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시작

하루 1만6000㎥→2만1000㎥ 증설…2025년 준공

고창군이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 분양, 석정 온천지구 개발, 고창읍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오수량 증가에 따른 사업이다.

하수 처리량을 기존 하루 1만6000㎥에서 2만1000㎥로 증설하게 된다. 사업비 153억을 투자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창군은 그동안 인근 마을의 반대의견에 수차례 면담과 의견수렴을 통해 하수처리 증설시설 협의를 이끌어 냈으며, 퇴비제조설비 중단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도산마을 등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사업 추진 중에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형광희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고창군민은 물론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고창 이미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

2300곳 경영부담 완화 기대

정읍시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업체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7일부터 7월1일까지 신청을 접수했고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지역 2300여 개 소상공업체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경영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청년 외식 창업자에 김치·장 담그기 교육

남원 청년마루, 교육생 모집…22일까지 접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남원시 청년·창업센터인 청년마루에서 운영하는 외식 창업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5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남원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며, 정원 30% 정도는 이와 무관하게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남원 청년마루 누리집을 통해 교육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은 연말까지 청년마루 공유주방에서 김치와 장 담그기 등 실습과 이론 교육을 받는다.

황교익 맛 수필가와 인기 요리사 박찬일씨, 고은정 제철음식학교 대표 등 전문가 특강도 들을 수 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청년 외식 창업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